

# 이창진을 주목하라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 KIA 7회말 2사 1·2루에서 1번타자 이창진이 좌월 슬라이더를 날리고 있다. 이창진은 1볼 1스트라이크의 볼카운트에서 kt 이정현의 3구째를 잡아당겨 비거리 110m의 타구로 좌측 담장을 넘겼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시범경기서 KT에 9-5 승리 ... 이명기 3안타·해틀베이커 홈런으로 첫 안타 이창진 “공격 되니까 수비도 마음 편해 ... 프로와서 가장 멀리 날려. 첫 홈런 기뻐요”

KIA 타이거즈의 ‘공격 퍼즐’이 순조롭게 맞춰져 가고 있다. KIA가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9-5 승리를 기록했다.

이명기가 재지있는 타격으로 3안타에 성공했고, 새로운 멀티자원으로 주목하는 이창진이 프로에서 처음으로 담장을 넘겼다. 기다렸던 해틀베이커의 첫 안타는 홈런으로 장식됐다.

KT 이대은을 상대한 KIA는 1회부터 공세를 펼쳤다.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김선빈이 첫 타석부터 중전안타로 출루해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명기의 우전 안타와 안치홍의 우익수 키 넘기는 2루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2-0이 됐다. KIA는 최형우의 적시타를 보태 세 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3-1로 앞선 2회 이명기의 재지있는 플레이가 4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1사에서 김민식이 좌중간 2루타를 때린 뒤 김선빈의 우익수 플라이로 3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타석에 선 이명기가 초구에 기습 스윙즈 번트를 쳤다. 투수 이대은이 공을 쫓는 사이 3루에 있던 김민식이 홈을 밟았고, 이명기도 공보다 빨리 1루를 통과하면서 번트 안타를 만들었다.

김기태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깜짝 놀라게 한 득점 장면이었다. 김 감독은 주중 시범경기에서는 특별한 작전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다.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단계인 만큼 선수들 스스로에게 경기를 맡기고 있다.

오키나와 캠프 ‘기량 발전상’ 야수부문 주인공인 이창진도 큰 박수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돌았다.

5-5로 맞선 7회말 2사 1·2루에서 5회 김선빈의 대타로 나왔던 이창진이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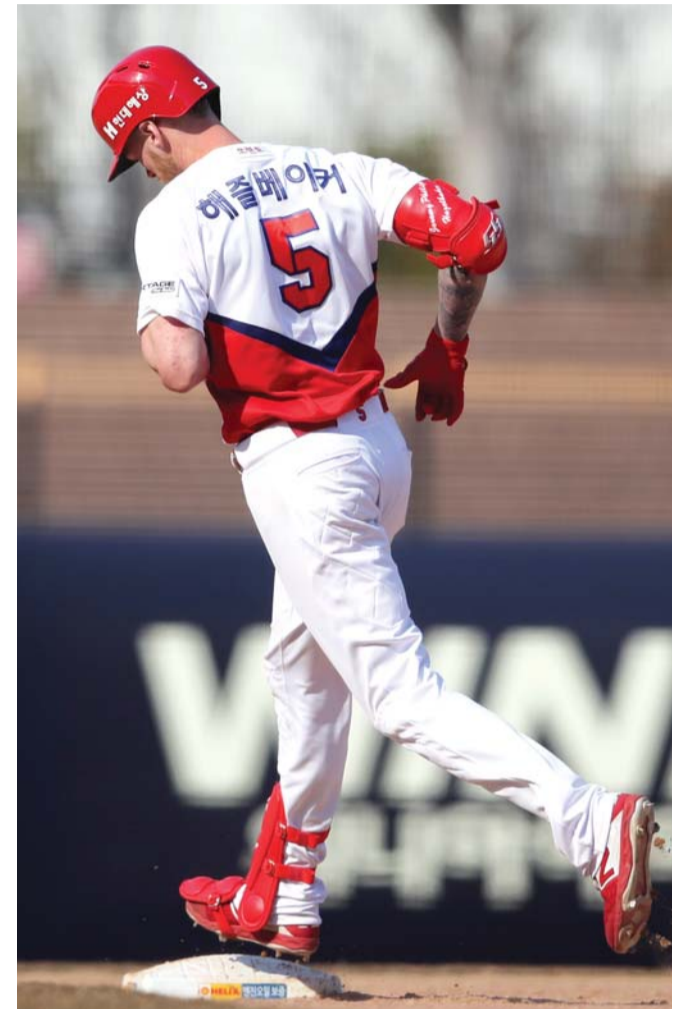
이정현의 139km짜리 직구를 공략한 이창진은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한 번에 3타점을 쓸어 담았다.

8회에는 앞선 두 차례 경기에서 ‘5K’로 부진했던 해틀베이커가 문선재의 대타로 등장해 손맛을 봤다. 김재운의 초구를 잡아당긴 해틀베이커는 시범경기 8타석 만에 나온 안타를 홈런으로 만들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의 활약 속에 ‘백업 요원’으로 주목하는 이창진까지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면서 KIA의 공격 지도는 성공적으로 그려져 가고 있다.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선보인 이명기는 “3루수가 뒤에 있어서 공간이 남아서 시도를 했다”며 “시합을 계속 나가니까 타이밍과 스트라이크 존도 잡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온 이창진은 “친정팀과의 경기라서 더 잘하고 싶었다”며 “프로에 와서 가장 멀리 공을 날린 것 같다. 홈런은 처음이다”고 웃었다.



KIA 해틀베이커가 8회말 대타로 나선 타석에서 우월 솔로홈런을 날린 후 베이스를 들고 있다.

또 “감독님, 코치님께서 (손목을 활용한 타격을) 지도해주셨던 부분이 시합 때도 나와서 기분이 좋다. 높은 공이었는데 높은 공을 치는 부분을 감독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결과 나왔다”고 언급했다.

내·외야를 오가며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은 공격에서도 인상을 남기며 올 시즌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이창진은 “지도받은 게 배팅 때나 시합 때 조금씩 나오면서 자신감이 생긴다. 공격이 되니까 수비도 마음 편하게 되는 것 같다. 감독님 코치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잘 되고 있다”며 “내야와 외야를 소화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다. 연습 꾸준히 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옛 스승 KT 이강철 만난 양현종 “승부욕 올라옵니다”

### 덕아웃 T 특특

▲안 좋다고 하고 쉬어 = “안 좋다고 좀 쉬어”라는 KT의 사령탑과 “수원에서 뭘했다”는 KIA 에이스. 14일 KT 덕아웃에서 반가운 재회가 이뤄졌다. 이날 이강철 감독이 KT 부임 후 처음 고향 광주를 찾았고, 옛 스승을 만나기 위해 양현종이 상대 팀 덕아웃으로 걸음을 했다. “잘 도와주시라”며 손을 붙잡은 양현종에게 이 감독은 “안 좋다고 하고 좀 쉬어”라고 답해 사람들을 웃겼다. 2019시즌 LG와의 개막전을 책임지게 될 양현종은 로테이션상으로 KT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하게 된다. 친정팀과의 첫 대결에서 선 상대를 만나게 된 이 감독은 회유에 이어 “(우리) 애들이 양현종 나오면 좋다고 하더라”는 말로 기선제압에도 나섰다. “승부욕 올라온다”며 웃은 양현종은 “수원에서 뭘했다”는 작별인사로 초보 감독을 긴장(?)시켰다. 한편 이 감독은 코치 시절 선수로 뛰었던 KIA 앤서니 코치, 서재용 코치와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도로로 밥 먹고 사는 친구들이다 = KIA는 지난 13일 SK와의 시범경기에서 5개의 도루를 허용했다. 이날 월렌드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한승택은 3루로 향하던 고종욱을 한 차례 잡아내기는 했지만, 상대의 잇단 도루에 진땀을 흘렸다. SK의 톱타자 노수광이 한 차례 도루에 성공했고, 고종욱은 3번이나 베이스를 훔쳤다. 김기태 감독은 이에 “도로로 밥 먹고 사는 친구들이다”며 “투수 퀵이 느렸네, 저지를 못했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4일 경기에서 김민식이 선발로 나온 부분도 전날 도루 저지와는 상관 없다고



KIA양현종(오른쪽)이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 앞서 1루 덕아웃을 찾아 이강철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언급했다. 앞서 대만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한승택과 김민식은 시범경기를 통해 전력을 점검 받고 있다.

▲길게 던진 것으로 만족해요 = KIA는 시범경기를 통해 4-5선발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다. 14일 사이드암 임기영에 이어 15일에는 고졸 신인 김기훈이 선발로 나선다. 그리고 함평에서도 연습경기를 통해 선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12일에는 황인준이 KT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4이닝을 소화했다. 결과는 4이닝 4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아쉬웠던 황인준이다. 그는 “밸런스가 안 좋았다. 캠프에서부터 비가 와서 길게 많이 못 던지기도 했고 아쉬웠다”며 “만족스러운 피칭은 아니었지만 길게 던져보면서 점검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던지는 법을 알 것 같아요 = 1년 만에 부쩍 자란 좌완 하준영이다. 고졸 2년 차

하준영은 KIA의 좌완 고민을 풀어줄 신예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마무리캠프에 이어 스프링캠프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펜 한 자리를 사실상 낙점해 둔 상황. 지난 시즌 좌완 필조였던 임기준이 어깨 통증으로 캠프 출발이 늦어졌고,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좌완 이준영과 함께 하준영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기태 감독도 “이준영과 하준영 두 좌완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며 “특히 하준영은 1년 만에 많이 달라졌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스피드를 끌어올린 하준영은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1.2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준영은 “웨이트도 많이 했고, 공을 던지는 법도 알게 되면서 스피드가 올랐다. 직구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며 “변화구를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타이거즈 ‘your dream #당신의, 우리의 꿈’ 이벤트

KIA타이거즈가 2019시즌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your dream #당신의, 우리의 꿈’이란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펼친다.

KIA는 오는 23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2019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3, 24일 2연전으로 진행되는 오프닝시리즈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걸그룹 오마이걸이 ‘비밀정원’, ‘볼꽃놀이’, ‘내 애길 들어봐’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태권도 퍼포먼스 시범단 ‘K타이거즈’가 그라운드를 힘찬 태권무로 수놓을 예정이다.

외야석에선 입장 관객에게 나눠준 풍선에 각자의 꿈과 희망을 적어 날리는 ‘소망 풍선 날리기’ 행사도 펼쳐진다.

KIA는 이날 입장 관객에게 응원 클래퍼 1만 개와 엠블럼 깃발을 나눠주며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 입장권 추첨을 통해 하나투어에서 제공하는 무안-오이타 가족항공권

23일 챔스필드서 개막전 걸그룹 오마이걸 공연 입장권 추첨 통해 무안-오이타 항공권 등 제공

(4매), 홀리데이인광주호텔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숙박권(1박 400만원 상당)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전 공식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올 시즌 그라운드를 호령할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 양 팀 감독에게 꽃다발이 전달된다.

KBO리그 공식 개막전인 이날 경기는 정운찬 KBO 총재의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개막 선언으로 시작된다.

개막전 시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하며, 애국가도 광주 출신인 KIA타

이거즈 열혈 팬 가수 풀 김이 부른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24일 경기는 배우 이재훈의 시구로 시작된다. 영화와 TV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인 이재훈은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다.

이재훈 씨는 “어릴 적부터 응원해 온 타이거즈 선수들 앞에서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며 “제 시구가 선수들과 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애국가는 가수 나비가 부른다. 한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KIA 홈런존’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 부스터’가 전시된다.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외야 우중간 잔디석에 ‘KIA 홈런존’을 설치, 구조물 위에 전시한 기아자동차나 구조물을 직접 맞히는 선수에게 해당 차량을 증정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